

팔로우업 사업 'JENESYS 한일차세대회의'의 기록

1. 사업 개요

【목적】 본 사업에서는 JENESYS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을 살려 한일 각각의 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를 테마로 토론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발표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양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 1 월 13 일 JENESYS 사업에 참가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일본 측 7 명、한국 측(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선발)9 명)

【일정】

날짜 방문지	내용	참가자의 질문·반응 (참가자 인원, 실적)
1 월 13 일	【제 1 세션】 테마 관련 의견제시, 발표준비	제 1 세션은 한일 각각의 참가자끼리 자국이 안고 있는 사회의 과제를 들어 토론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캐리어 형성’, ‘재해 시의 대응’, ‘청년층의 정치참가’, 한국 측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교사의 권리와 몬스터 페어런트’, ‘환경·재해·에너지’ ‘SNS 와 ChatGPT’ 등의 과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참가자 : 16 명)
1 월 13 일	【제 2 세션】 테마 관련 발표 및 의견 교환	한일의 회의장소를 Zoom 으로 연결하여 제 1 세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에서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점도 있어서 서로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가자 : 16 명)

2. 기록 사진



2024 년 1 월 13 일 제 1 세션



2024 년 1 월 13 일 【테마 관련 교류】 제 2 세션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대학생

토론을 하며 사전지식이 없어서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참가자들로부터 알 수 있는 기회였고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방일단 이후 또 한번 일본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사이의 문제들 외에도 다양한 국제 사회의 문제들을 같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그 깊이와 더불어 생각을 넓힐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 일본 대학생

일본인들끼리의 논의에서도 학생들의 관점과 사회인들의 관점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의 과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일본과 비슷한 점이나 조금 다른 점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일본 사회인

평소에 일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문제는 가까이 있다고 느꼈으며 이를 일본, 한국 측의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본 사회인

경제나 경력, 재해 등 일본과 한국에는 공통된 과제가 있으며 이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도 서로의 국민들이 협력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새삼스레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초월하여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의 버팀목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4. 방문처 소감 (발체)

◆ 일본 측 운영 단체 (JENESYS 동창 조직 Japan Korea Alumni Forum)

차세대 회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운영을 서포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있었다면 문제의 배경이 다른 까닭으로 한국 측의 새로운 관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이 배웠습니다. 이처럼 한일의 장래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친목을 돈독히 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와 마주할 필요성은 높아서 양국의 우호와 한층 더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 JKAF 는 앞으로도 한일 교류의 촉진에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 한국 측 운영 단체 (JENESYS 동창 조직 Korea Japan Alumni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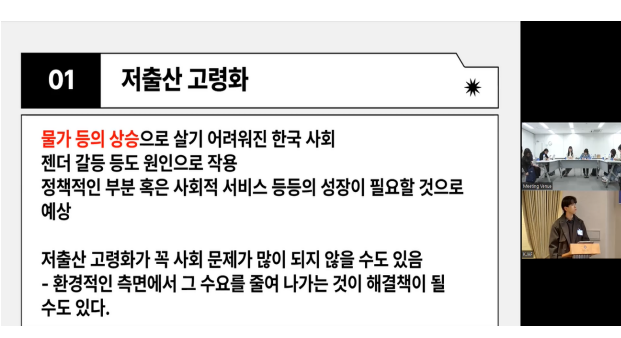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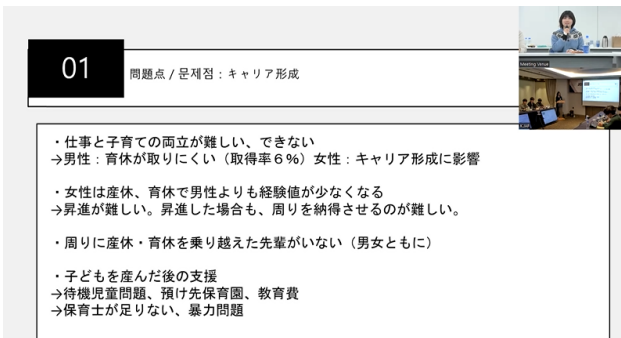
이번 차세대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도 더 나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큰 걸음이었습니다. KJAF 에서 JKAF 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들 힘을 모아 열심히 준비했고, 한일관계를 포함해 양국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더욱 커졌으리라 확신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한국과 일본이 고민하는 문제가 서로 닮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 활동을 지속하면서 더 나은 KJAF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자료 등

 jkaf_official 1月13日(土)に2回目となる日韓次世代会議を開催しました。 JKAFとKJAFで「日本・韓国の若者が考える自国の課題」について意見交換、質問を通じて自国・相手国を理解するよい機会となりました。 日本側であった課題は、キャリア形成・地産地消・若者の政治参加についてが主な議題としてありました。 韓国側は、少子高齢化・教師の権利・環境問題・SNS誘引についてがあげられました。 お互いの国で起きている課題もあれば、課題に関する違った視点での見方等も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	 kjaaf_official JENESYS 2024 한일 차세대회의 개최 지난 2024년 1월 13일, JKAF와 KJAF가 함께한 'JENESYS 2024 한일차세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현재 각국의 문제'로, 2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또 다른 양국의 사회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함께 마주한 공통 과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서로의 국가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JKAF와 KJAF 참가자들이 각국의 현장에서, 1부 주제인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
---	--

2024년 1월 15일 (Instagram) JKAF 와 KJAF 에서 ‘일본·한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자국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비슷한 과제도 있었다면 다른 관점도 있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Instagram) ‘한일 양국의 젊은이가 생각하는 현재 각국의 문제’로 2 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님은 듯 다른 양국의 사회를 알아보면서, 함께 마주한 공통 과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서로의 국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6. 본 회의에서의 발표 내용 (발체)

	
본 사업에서는 양국의 참가자들이 자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인식을 높였습니다. 일본 측 과제 ●경력형성: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 육아휴직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이나 특히 여성은 출산 등이 경력 형성에 영향을 주어 승진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교육비 등 출산 후의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대책: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임에도 일어났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 피난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피난 후 피난시설에서 지내는 방법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또한 정보사회인 까닭으로 가짜뉴스나 SNS 에서 구조의 호소가 있어 정보가 뒤섞여 있다. ●청년 투표율: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선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실감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한 정치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지 않아서 정책 역시 청년층보다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측 과제

●저출산·고령화: 물가상승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진 한국사회. 젠더문제와 정책적인 부분, 사회 서비스의 성장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사회인 까닭으로 사교육이 강화되어 교권의 침해나 보호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 재해, 에너지 관련: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재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서서히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존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

방재관련→최근 한국에서도 호우, 폭설, 지진 등 여러 자연재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물리적으로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SNS에서의 자기과시: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는 자기과시가 문제가 되고 있다. 10 대 연예인들이 명품 앰배서더가 되어 판단력이 아직 미숙한 어린 연령층에도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ChatGPT: 인간의 창조성이 묻히고 만다는 취약성이 있다. 생산성과 효율은 크게 올라 비용 절약 등 사회적인 이익이 된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활용은 하되 자신의 의견, 입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단순한 정보일 뿐이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